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4. 25.(목) 11:00 < 4.26.(금) 조간 > 배포 2024. 4. 25.(목)

청년 인재의 세계무역기구(WTO) 인턴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·대학 공동 협력방안 논의

- 통상교섭본부장, 9개 국제대학원장들과 간담회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5일(목) 12시, 9개 대학* 국제대학원장들을 초청하여 우리 청년 인재의 세계무역기구(WTO) 인턴 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경희대, 고려대, 서강대, 서울대, 연세대, 이화여대, 중앙대, 한국외대, 한양대

이날 간담회에서는 WTO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. 특히, 국제대학원들은 WTO 근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우수한 석·박사 과정 학생을 추천하고, 최종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인턴십 기간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며, 정부도 체재비, 항공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논의하였다.

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에서의 위상('22년 기준 무역규모 6위)에 비해 WTO 사무국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WTO 사무국 채용의 중요한 경력이 될 수 있는 인턴 근무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. 이와 관련,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응고지 오콘조-이웰라 WTO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WTO 인턴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다.

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"한국 청년의 WTO 진출 확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WTO 내 역할 확대와 우수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"며, "WTO 인턴십을 통해 우리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,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"고 언급하였다.

담당 부서	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	책임자	과 장	윤정원 (044-203-5920)
		담당자	사무관	서준호 (044-203-592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